

8강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가 (첫번째 시간)

‘자살’이라는 이름의 유행병
사회가 자살을 부추긴다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
자살의 사회적인 원인
세속적인 이유로 자살한다?
자살은 무서운 고통을 부른다
자살이 가족과 주변에 던지는 고통
죽음에 대한 무지가 자살을 부른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영혼의 정화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면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쉽게 카드를 사용하다가 빚만 지고 궁지에 몰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지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 마시고 카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카드빚으로 자살한 사람의 유언)

답답한 세상, 답답한 인생. 난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 답답한 세상과 꼭 막힌 인생 때문이었다. 어른인 아빠는 이를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신다. 어린이인 나는 8시 30분부터 6시까지 학교와 학원, 10시까지 공부,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봐서 혼날 때에는 이해가 가도, 공부를 했는데도 부모님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내가 어른이면 최대한 이해를 할 것이다. 세상은 답답하다. 난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어린이가 왜 어른들의 개조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 자살한 어린이가 남긴 글)

저는 애로운(외로운) 80 독고(독거) 노인입니다. 90년도부터 당뇨와 농내장(녹내장)을 앓어(앓아) 왔습니다. 더 견딜 수 없어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와 2동 사회담당 보조 아가씨(아가씨)와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독거노인의 유언)

자살이라는 이름의 유행병

우리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 최근 우리 사회의 자살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1.5배나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최근의 자살 현상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번지고 미약처럼 한번 빠지면 쉽사

리 헤어지기 힘든 특징을 보인다. 2005년 2월 말 어느 비오는 날 오후 신문 지면과 마스크를 가득 메운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 뒤를 잇기라도 하는 양 2007년의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등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영화에서나 TV드라마에서 한창 인기의 절정을 치닫는 연예인 스타들의 자살 파동은,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저소득층 생활인이나 우울증 등 각종 정신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동기가 되고 있어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게다가 높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의 자살은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방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음독 자살과 투신자살 등 사회 전체가 유행처럼 자살의 늪에 빠져들어 있는 지경이다.

대중스타들의 연이은 자살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즉각적이고 기본적인 의문을 갖는다. 어느 모로 보나 남부러울 것 없는 톱스타가 왜 자살을 택했느냐는 자살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다. 하지만 심각한 자살의 도미노 현상 앞에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동기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팬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대중스타들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좀 더 천천히 깊이 있게 우리 사회의 '위험' 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그들이 톱스타이고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죽음도 다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심연 앞에서 한 줌의 재로 남은 유명 연예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기고 있다.

자살은 사회의 심각한 정신병리 현상을 낳는 일종의 사회적 정신병이라 볼 수 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세상이 싫다고 죽는데 나 같은 건 살아서 뭐 해' 하는 이상한 자괴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생각은 전파되는 힘이 큰 까닭에 사회에서 이렇듯 자꾸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크게 취급하다 보면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 역시 부정적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이러한 자살 유행증에 대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와 이혼, 독거로 가족의 연대감이 급격히 상실되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감성적이고 충격적인 자살 내용을 많이 전하고, 자살자를 미화하고 자살을 방조하는 듯한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자살이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스타들의 잇따른 자살에 이어 붓물 터지듯 번져가고 있는 각계각층의 자살파동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자살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구조 양쪽에 모두 있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품성을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종교가 맡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사회가 자살을 부추긴다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빠” 를 입에 달고 다닌다. 바쁘다 못해 심지어는 “바빠서 죽겠다” 고 말하면서 정신 없이 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이렇게 바빠서 죽고 못 사는 시대의 현대인에게에는 자신을 돌보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차분히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서는 것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듯이 짧게 생을 휩 스쳐지나가려 한다. 현대인의 슬픈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옛 선인들이나 산사의 스님들에게 ‘인생’ 은 그 자체로 수행의 수단이었고, 존재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물질문명이 우리의 생각마저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의지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삶이 조금만 힘들면 잘못된 선택의 그림자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이들을 유혹한다. 바쁘게 살다 바쁘게 죽다 보니 세상살이에 대해서 아등바등 발버둥만 치다가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정신없는 삶, 의지박약의 삶은 사회의 물질적 면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도가 지나쳐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껏 자살에 대해 가져온 태도는, 낙오자이거나 못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쯤으로 보는 정도였던 게 사실이다. 그저 사회의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 취급해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만 다뤄왔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복잡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다수를 향한 자살의 유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혹한 생존경쟁에 몰두하다보니 현대인들은 어느새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심각한 물질만능의 병에 걸려 버린 것이다. 그리고 생존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낙오자들은 이토록 차갑고 험한 세상을 못살 것 같다는 위험한 상상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불황과 고실업시대가 이어지면서 늘어가는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일시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자살이란 극단적 행위로 인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 성형수술 후유증, 빈곤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살의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자살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모순이 총체적으로 부각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하지만 자살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개인의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울증’ 과 같은 자살의 원인은 개인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과 개인의 내면적 문제가 복합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자살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

♣ 우울증은 자살의 심각한 원인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스타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자살 사태에는 우울증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회의 정신질환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살자와 예비 자살 기도자를 통틀어 대략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만성 알코올중독, 조울증, 뇌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살자가 충동적 감정에 휩싸여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위와 같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자살 의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 따라서 평소 이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잘 보호해주어도 어느 정도 자살 감행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다.

우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습관을 잘 관찰하고 개인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은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신변을 절망적으로 몰아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 자살자의 메시지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자살자는 말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그래서 자살이라는 못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서서히 속삭이듯 흐느끼곤 한다. 자살감행자의 이런 징후를 파악한다는 게 여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에게서 아래의 징후가 포착되면 전문의나 가족에게 알려 위험 지역에서 자살감행자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살을 결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감행하기까지 대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징후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된다. 흔히 ‘죽음의 메시지’ 라고 불리는 자살자들의 자살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자살할 뜻을 비친다. 자살감행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나서 가족들이나 친구, 평소에 의지하고 지내던 직장동료나 상사 등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죽고 싶다” “사는 게 허무하다” ,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다” 는 식의 이야기를 던지시 흘리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세상은 그렇게 험한 곳만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

둘째, 평소에 잘 찾지 않던 종교인이나 의사, 마음으로부터 의지하던 동료나 상사를 일부러 찾아간다.

따라서 평소에 잘 연락이 되지 않던 후배나 대화가 별로 없던 친구, 직장동료가 별 이유 없이 찾아와 머뭇거리며 신세한탄을 하거나 자조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일단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평소보다 더 우울해지고 말수가 없어진다. 이때쯤 되면 자살감행자는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이때 나타나는 이들의 징후는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성생활도 중단한다. 또한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깊은 상심에 빠져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벌써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과의 번민에 빠져 있을 때이다. 이 시기에 자살 충동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자살을 감행할 확률이 70퍼센트 이상이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가 앞서의 증세를 하나둘 보이다가 눈에 띄게 우울해지고 세상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빨리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종교인에게 데려가 자살을 중단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넷째, 자살을 감행하려고 할 때이다. 이때는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애인에게 준다거나 자기 책상을 말끔히 정돈하고 속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 등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그동안 고맙다” 든지 “행복하길 바래”,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 는 등의 마지막 메시지를 핸드폰이나 편지로 남긴다. 이때는 자살을 막기가 역부족일 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살자가 그릇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자살의 사회적인 원인

자살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 현상은 ‘자기 자신의 의지’ 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자살자가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나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초등학생과 재수생의 자살, 인터넷 사이트의 공개적인 유혹,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살 사례, 실직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 그리고 외로운 노인의 자살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령층도 초등학생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만능주의, 가족관계의 해체, 폭력적인 인터넷 문화,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확산, 학벌 지상주의, 물신주의 풍조, 외모 지상주의 등 온갖 사회병리 현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양상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경제 만능주의로 인한 자살

우리 사회는 이제 신용카드라는 명목으로 빚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TV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듯한 청순한 미모의 여성이 명품 쇼핑으로 자신이 지고 있는 카드빚을 갚아주면, 상대가 나이가 많은 자식이 있든 상관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자식의 카드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빚을 갚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빚을 갚아주

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 정도는 이제 뉴스거리도 못 된다. 카드사의 무책임을 탓하는 것도,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소비를 공박하는 것도 이젠 상투적인 어법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인간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인간의 주인이 돼버린 듯하다. 언제부터인가 돈만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어버렸다. 자살 사례를 조사해보면, 대략 70퍼센트 정도가 경제적 문제가 동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적 가치 하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건만, 도구적 가치를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 더 중요한 다른 가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경제제일주의의 논리이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스트레스와 우울증

우리 사회는 처절할 정도의 과로 사회다.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부담, 회사 내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구조조정이나 실직 부담에 짓눌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40대 남성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한국 직장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연령층인 40대와 50대 가운데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거나 일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가정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연령층이건만 아무런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사람도 많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낳기도 한다. 이런 우울증은 개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찾아오는 우울증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 우울증'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26일 고려대 의대 정신과 팀이 명동 거리에서 실시한 우울증 자가진단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세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 단축형 우울증 자가진단표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56명이 우울증 위험군에 속했다. 56명 중 12명은 이미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3명은 중증 우울증 환자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상태로 밝혀졌다.

우울증은 분명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증상이긴 하지만, 단순히 기분 혹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두통이나 무기력감, 불면, 체중감소 혹은 증가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마음의 감기에서 시작했던 질병이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내 자살로 치달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만다. “자살자의 상당수가 가벼운 우울증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는 정신의학계의 보고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학업 스트레스

한 시사주간지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6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0.4퍼센트는 학업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에 대해 ‘사회구조상 예고된 불행’이란 평가를 내렸다. 다음으로 ‘부모의 지나친 교육 열’ (18.5퍼센트), ‘교육병이 부른 화’ (15.5퍼센트), ‘아이의 잘못된 판단’ (14.6퍼센트), ‘학교교육의 잘못된 병폐’ (10.3퍼센트) 순으로 답했다. 자살한 아이의 잘못은 14.6퍼센트에 불과하고, 다른 4가지 이유(85.4퍼센트)는 모두 사회적 원인이랄 수 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은 명문대 입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마치 명문대만 들어가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란 생각을 대다수 기성세대가 갖고 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에 의해 명문대 진학 여부가 결정되고 명문대 출신이란 하나의 레테르가 젊은이 미래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 인생은 성적순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만 달러가 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나아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태위태해 이미 자살사망률 고위험 국가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런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생명경시 풍조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리셋(Reset)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게임은 골치 아팠던 상황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게임 주인공의 운명도 걱정할 게 없다. 리셋 버튼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명문대 대학생이 마치 게임을 할 때 리셋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 세계의 리셋 버튼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일전에 전방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도 컴퓨터 게임광이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자살 사례를 검토해보면, 자살이 마치 게임이나 장난으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어서, 살다가 고통을 당하기라도 하면 마치 자살이 해결책이라도 되는 양 쉽사리 자살을 감행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은 결코 게임일 수 없다. 골치 아픈 현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면, 자살로 인해 고통만 훨씬 커질 뿐이므로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생명의 존엄함을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존재의 값어치가 가벼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 노인 문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다.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통계 자료를 모아 국내 통계청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꼴이었다. 반면 미국, 호주는 10만 명당 10명대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65~74세에선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30개국 중 최고 수준(10만 명당 58명)이었고, 75세 이상(103명)에서도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국제사회에 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32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다. 지난 10년 동안 약 4배 정도 뛰었다. 60대 노인의 경우 1996년 534명에서 2005년 2,007명으로,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1996년 549명에서 2005년 2,35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노인복지연구팀장은 최근의 빈번한 노인 자살의 원인을 급격한 핵가족화와 사회 안전망 부재에서 찾는다. “노인은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도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 반면 자녀는 사회에 부양책임을 돌리려 한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는 아직 바닥 수준이다. 한국 노인은 자녀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통계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니다. 독거노인들이 일반 노인들보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세 배나 많다는 분석도 부모와 별거 중인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만큼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와 사회, 그리고 국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달동네의 한 할아버지는 “이가 없어서 낡은 녹즙기에 밥과 김치를 섞어서 갈아 마신다” 고 하소연했다. 가난한 독거노인들은 한결같이 “사는 것이 지옥이다. 빨리 죽고 싶다” 고 토로한다. 그렇다고 누가 이들의 고통을 자녀들의 불효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세속적인 이유로 자살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마치 자살이 모든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이 너무 쉽게 자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누구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빛나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숫자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세속주의·물질주의가 지나치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물러났게 되었다. 남들의 화려해 보이는 성공과 자신의 초라하고 피곤한 처지를 단순 비교하며 부러움과 질투, 좌절과 분노의 마음을 키워온 결과,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다. 경쟁 논리의 사회에는 패배자와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세상은 이들에게 한없이 두렵고 잔인한 곳이 되어버린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 삶이다” 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 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와 어려움이 모두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싹났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것만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 또 자신과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으며, 아무리 괴로운 처지에 있어도 자살과 같은 극단적 파괴행위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

자살을 선택하면 오히려 다음 삶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믿는 문화권에서는 자살률이 낮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통해,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아져도 상대적으로 내면생활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도 하루 빨리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죽음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 불행한 모습으로 죽는 사례가 많다. 대학교수로 회사 경영에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일에만 쏟아부었던 그는 어느 날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죽음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에만 몰입했을 뿐 죽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죽음을 선고 받고서 갑자기 공백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런 상태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한 여파로 경제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사고방식에만 빠져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

사실, 사회적 성공은 죽음과는 별 상관없이 없다. 죽는 순간,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만이 주어진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과 “죽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평온한 마음으로 죽었는가,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쳤는가?” 두 가지 질문만이 있을 뿐이다. 이 질문은 죽어가는 당사자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묻지도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인간 그 자체만, 영혼의 성장 여부만 물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또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평초처럼 하찮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속적 가치는 죽음의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에 평생 매달려 아등바등 살다가, 불행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그보다는 죽음 앞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삶일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은 종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